

# 始覺의 네 가지 단계

(시각)



##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과정에 단계적인 차이가 있다. 이를 지위점차(地位漸次)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범부의 지위에서 부처가 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52위 혹은 55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상례다. <능엄경>에서는 60위로 말하기도 한다.

<기신론>에서는 시각사위(始覺四位)라 하여 깨달음을 완전한 깨달음(究竟覺)과 불완전한 깨달음(非究竟覺)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수행을 시작하는 범부들이 아직 최하위 수행단계에서 지난 날에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여 더 이상 그릇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범부의 깨달음(凡夫覺)이라 하면서 인과의 이치를 바로 아는 정도의 자각이 일어난 상태에도 깨달음이란 말을 붙인다. 물론 이는 도를 체현한 분상의 깨달음은 아니다. 입념 속에 일어나는 생(生), 주(住), 이(異), 멸(滅)의 사상(四相) 중 멸상을 깨닫는 단계를 말한다. 멸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신체적 행위

나 언어적 행위, 다시 말해 신업과 구업의 나쁜 행위가 멈춰지는 것을 말한다.

성문이나 연각들의 관하는 지혜와 처음 뜻을 편 보살들은 생각의 달라짐을 깨달아서 생각에 달라지는 모습이 없어진다. 거친 분별과 집착을 버린 까닭에 '비슷한 깨달음' (相似覺)이라 한다. 이승들과 초발의 보살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깨달음도 완전·불완전으로 나뉘며 미세 망념마저 없는 게 '구경각' "無念 관하면 부처님 지혜 향하리"**

번뇌의 생각이 달라지는 모습(異相)이 없어지므로 자아에 대한 고집을 갖는 아견(我見)이 없어진다고 한다.

'거친 분별'이란 미세한 분별보다 끊기 쉬운 번뇌로 이것저것을 구별하여 어떤 대상에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이 없어지면 표면상으로는 깨달음을 얻은 상태와 비슷한 경지가 나타나는데

이를 상사각(相似覺)이라 한다. 이는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廻向)의 삼현(三賢)의 수행지위에서 언어지는 깨달음이다.

십지(十地)의 수행지위에 오른 보살들은 생각이 머무는 것(住相)을 깨달아서 생각이 머무는 모습이 없어진다. 분별하는 거친 생각의 모습을 떼어낸 까닭에 '분을 따라 본각에 가까워지는 깨달음(隨分覺)'이라 한다. 주상(住相)이란 마음에 생각이 머물러 단단한 고집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 아집(我執)을 이루어 모든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와 남을 구별하게 된다. 나를 모르는 어리석음(我癡)과 나를 내세우는 고집(我見), 나만을 중히 여기는 생각(我愛), 나에 대한 교만(我慢)이 가득 찬 말나식(末那識)인 제식이 수분각을 성취하면 사라진다. 보살의 수행지위인 십지(十地)의 수행을 완성하면 등각(等覺)의 지위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마음에 생각이 처음 일어나는 순간을 깨달아 최초로 형성되는 생각의 모습(生相)이 없어지게 된다. 미세한 망념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마음의 성품을 볼 수 있다. 곧 기신론에서 말하는 견성의 단계이다. 마음이 언제나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머물게 되니 이를 완전한 깨달음(究竟覺)이라 한다. 이것은 시각의 최후 일념이 본각과 일치되는 순간이다. 이때 근본무

명(眞)이 진여본각을 움직여 일심의 생멸을 일으키는 것을 깨달아 망념이 생기는 모습인 생상(生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 보이며, 다시 생(生), 주(住), 이(異), 멸(滅)하는 사상(四相)의 동요가 없어져 마음의 길이 한결같아진다. 생상(生相)에는 생각이 일어나는 원초적 단계의 세 가지 양상의 과정이 잠재해 있다. 이를 세 가지 미세한 과정이라 하여 삼세(三細)라 한다. 주관과 객관을 분립시키는 잠재적인 원동력인 업상(業相)과 능동적으로 주관을 세워 생각을 일으키는 양상(轉相)과 그 생각이 피동적으로 반영되는 객관적 양상이 있어 마음속에 생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기신론>에서는 깨달음의 문제를 생각의 문제로 정리하여 설명한다. 인간의 한 생각 곧 입념 속에 생(生), 주(住), 이(異), 멸(滅)의 사상(四相)이 동시에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어 전후(前後), 심전(深淺) 세수(細 粗)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시각사위(始覺四位)의 설명을 마치고 <능가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결론짓는 말이 있다.

"만약에 어떤 중생이 능히 무념(無念)을 관하는 자는 부처님의 지혜로 향하게 된다."



## 항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 당당할 수 있게

승가(僧伽)는 사부대중의 결집체다. 출가 승가는 비구와 비구니이고 재가 승가는 우바세(남자 신도), 우마니(여자 신도)를 의미한다. 승가의 첫째 덕목은 화합(和合)이다. 진리의 등불(法燈明)과 마음의 등불(自燈明)을 스승삼아 게으름 없이 깨달음을 향해 정진함을 생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 탁다하고 경쟁하며 흔들림과 험떡임을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불교의 경전 구성은 주입식이 아닌 대화체로 되어 있다. 묻고 답하며 거듭되는 스승과 제자의 열린 대화 속에 열린 진리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완성한 후, 사르나트에서 만난 다섯 제자와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대화에서

와 비구니를 먼저 떠올리게 되어 있다. 비구와 비구니는 어느 세월인지는 짚어 볼 일이나 우월한 존재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고, 한편에서는 사랍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의 해결사까지 자임하는 부끄러운 무리도 끼어 있는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비구와 비구니는 받는 입장이 되어 나가고 배우는 일에 인색하다. 초창법회에 가서도 주좌 측에서 내미는 봉투 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고, 승려의 장례식장에도 돈 받는 접수대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꼴사나운 지경에 이르렀다. 진리에 이르게 하는 대화다운 대화는 만나기 어렵고 신앙을 상품화하는 흥정 비수한 거래 아닌 거래가 날로 들레를 넓혀가고 있는 느낌이다.

받는 일에 익숙하다보니 소위 출가 수행승이 해마다 생일상을 신도들로부터 받고 있는가 하면, 생일축하의 현찰이든 봉투도 사양치 않는 풍토이다.

## 승려는 승려답게 수행력이 기본 마지막까지 깨달음 향해 정진해야

도 우월과 열등이 없는 평등성의 일체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섯 제자가 차례로 깨달음에 이른 순간에도 나를 스승으로 하여 다섯 제자가 붓다(Buddha)가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 나와 더불어 여섯 붓다'의 출현을 기뻐하는 모습이 아함부 경전에 한 폭의 수채화처럼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한 달에 한 차례씩 보름날 밤에 행해지는 자자법회(自恣法會)에서도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행동과 언어에 있어, 대중화합을 흐드는 가버움은 없었는지 진솔하게 대중을 향해 묻고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쿠시나गर에서 열반에 드실 때에도 제자 아란이 길상초를 자리에 퍼드려다, 매우 고마워하며 감사해하는 따뜻한 말씀도 남기시는 것이다.

아함부에 등장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자하신 할아버지,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성자(聖者)의 옷뎀 한 일상의 진리를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 승가라 하면 비구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승려는 승려다워야 스님일 수 있는 것이다. <금강경>의 흉내를 내지 않더라도 삭발염의 했다고 해서 승려는 아닌 것이다. 게으름을 병으로 알아 깨달음을 향해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가난함으로 처음도 중간도 끝도 아름다운 사람이 스님인 것이다. 신도들의 주머니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지 스님의 주머니는 비어있는 경우가 드물다면 이것은 한국불교계의 슬픔이요, 당장 고쳐 나가야 할 출가승단의 병폐일게 분명하다.

이제 제법이지 대웅전의 법당에서는 북 짓는 불교, 공덕 쌓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영험설화를 풀어대는 일 은 사라져야 한다. 출가 승가는 사찰 재정을 앞세워 흔들리거나 험떡이지 말 일이다. 노후대책 따위로 변명을 일삼지도 말 일이다. 승려의 노후는 비상금이 아닌 수행력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게으름 없이 꾸준히, 죽는 그날까지 깨달음을 향해 정진해야 한다. 기분이 튼튼하여 상식이 통할 수 있게, 누구에게나 당당할 수 있게.

# 중생은 바로 보살이 예경할 대상



##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⑥ 보시의 대상은 누구인가

無有一切物 菩薩所未施 (무유일절물 보살소미시)  
無有一眾生 不曾受施者 (무유일중생 부중수시자)  
論者語大地 一切應禮汝 (논자어대지 일체응예여)  
何故禮大地 菩薩行施處 (하고예대지 보살행시처)  
菩薩一日施 種種眾雜物 (보살일일시 종중중잡물)  
辟支支佛百劫 不能知邊際 (벽지불백겁 불능지변계)  
所以不能知 大悲為施體 (소이불능지 대비위시체)  
能成種智果 施因為為因最大 (능성종지과 시인위최대)

번역  
일체의 물질이 없다면야 보살도 베풀지 못하고, 한 명의 중생도 없다면야 곧 베풀을 받는다는 것도 성립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논설에서 말한 대지(大地)는 일체 응당 그대가 예경할 것이니, 아찌서

대자비심은 곧 지혜의 씨앗

'내 것'이란 소유 개념 탈피

대지에 예경하라고 하는가하면, 보살이 보시를 행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보살이 하루만 보시하되 가지가지 중생에게 잡다한 것으로 했을지라도, 벽지 불은 백겁이 지나도 온전히 알 수가 없습

니다.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까닭은 대자비(大慈悲)를 보시의 근본 도로리 삼았기 때문이며, 능히 심은 대로 지혜의 열매를 맺기에 보시의 인연이 가장 위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설  
동서남북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듯이, 우리는 구하는 이들에게 모두 베풀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대지에 맑은 물이 스며들 듯 보시하다 보면, 어느새 모든 대지를 적시지 못할 것도 없다. <보리행경>에서 '가축신을 신고 다니면 온 대지에 가축을 깔아놓은 것과 같다'는 말과 상통한다. 대지(大地)는 단순히 땅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대지는 보살행을 실천할 장소를 이르는 말이다.

보살행을 할 장소이란 어디인가? 바로 중생이 있는 장소이며, 중생 그 자체를 이르는 말이다. 각자 한 사람씩 보시하는 이가 늘어나다 보면, 맑은 물이 대지를 다 적시지 못할 것도 없다는 말이 헛말은

아니다. 한이 없는 중생에게 보시를 못할 것도 없다. 또한 대지가 바로 보살이 예경할 곳이라고 하였으니, 이 말을 달리하면 모든 중생은 바로 모든 보살이 예경할 곳이 된다.

중생이 바로 보살이 예경할 곳이라니!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르겠다. 부처님이 예경할 곳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중생이 예경할 곳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살에게 있어서 중생은 더 이상 구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중생이 곧 부처며, 보살은 그 중생인 부처님께 예경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보시를 하는 이가 보시를 받는 이에게 도리어 구제를 받는 도리가 성립된다. 구하는 이가 있어서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이 주는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러하다.

이런 마음을 성문과 벽지불은 백겁이 지나도 알지 못하는 대자비심(大慈悲心)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심은 대로 지혜를 맺는 위대한 씨앗이라고 제바보살은 말한다.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 무료보시 안내!!

주지스님 전용마이크 구입시 → 고성능 다이내믹마이크 보시/ 앰프설치 사전 예약만 해도 → 고급 무선마이크 1셋 보시!

(무료 보시 기간 : 2016년 2월 29일까지 구입 및 앰프설치 예약 사찰에 한함)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배송비 포함)

○ 앰프 구성 : 스테레오 앰프 300W 1대, 초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 소형 믹서 5채널 1대, 탁상형 구즈메이커 1대, 사회저음 마이크 스탠드 1대, CD기 1대

● 무선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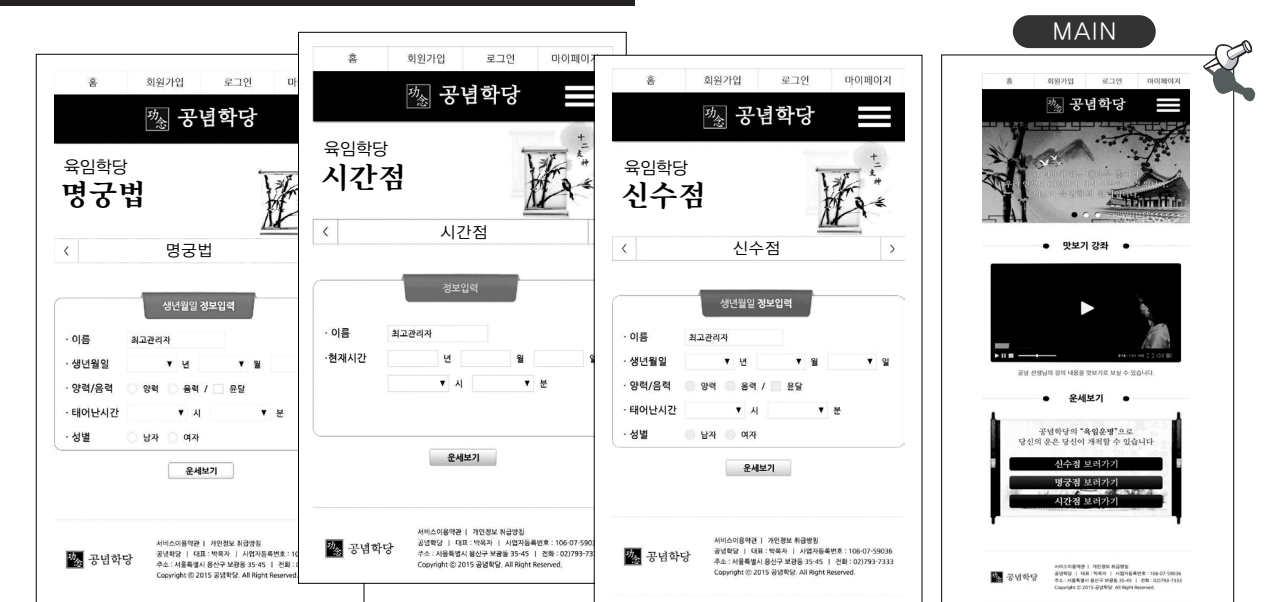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소,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 한국 최초!! 내손 안의 육임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손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영법(사주, 개운법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 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던 육임 운영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절시는 법으로 만든 비술이다.



시간법도 각각 寿命(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육임은 대운법 뿐만 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 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육임 운영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 가 액 : 600만원 (모바일 / PC 버전 : 내손 안의 육임 보는법 무료로 강좌 해 드립니다.)
- 육임강좌 수강생 모집 : 수강료 300만원
- 육임이 보인다. 공명저/4x6배판/정가 70,000원
- 강좌문의 : 공법학당 010-4471-6410
- 구입문의 : 관음출판사 02-921-8434